

기독교 공동체 전통과 사회적 합리성에 관한 간학문적 신학연구

- 린드벡과 머피의 신학을 중심으로 -

안택윤 (서울장신대학교 부교수)

I. 서론

II. 전통과 합리성의 관계에 대한 신학과 과학철학의 공통적 출발점

III. 린드벡의 신앙의 규례들과 공동체론

IV. 머피의 전체론적 연구프로그램

V. 나가는 글

• ABSTRACT •

An Interdisciplinary Theological Study on the Christian Community
Tradition and the Social Rationality: Focused on the theology of G.
Lindbeck's and N. Murphy

Taek Yun Ahn (Seoul Jangs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paper asks the question of whether theology should seek rationality in Christian tradition or seek a universal rationale including outside society as well as tradition. For this, this paper utilizes an interdisciplinary way of the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which is based on common ground in rejecting foundationalism of dogmatism in theology and of empirical positivism in science. Parallel with Thomas Kuhn's paradigm theory, G. Lindbeck seeks a rationale in the form of a creedal tradition, as rules of faith of Christian community. Lindbeck tries to find a rationale in society in general in the eye of the tradition. Lindbeck's position is easily accessible to the Christian community and provides a safe way to understand and act in society. However, Lindbeck's account produces a division between the intrasystematic truth in church and ontological truth in the world. The former plays a lens to interpret the world, then results in fideism. To solve the problem, N. Murphy, who holds a holistic perspective considering tradition and social rationality at the same time and carries the insight of MacIntyre's practice of prominent virtue, argues a logical rationality by view of 'research programme' in I. Lakatos. Murphy seeks a competitive and rational theology which is equipped with a creative theological research programme to lead other academic fields. Even though Murphy's position remains mainly as a rationality of social influence focused on worship and piety in the Christian community, and has some inconveniences remaining in a narrowness of Anglo-American logic and limited holism which cannot response to the urgent social ethical issues effectively, Murphy's holistic theological research pro-

gramme should be highly appreciated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fideism and an important accomplishment in interdisciplinary theology.

Key words: tradition, social rationality, Lindbeck, Murphy, theological research program

I. 서론

신학은 전통적으로 교회를 위한 신학이지만 동시에 그 교회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가 임명하신 공동체라면 또한 신학도 공동체의 전통과 더불어 사회적 합리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전개된 전통과 합리성의 관계에 대한 논증은 진리를 추구하는 신학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전통과 합리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과학철학자들의 논쟁을 통하여 더 발전되고 있다. 최근의 과학철학에 의하면 모든 이론을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검증 혹은 반박을 할 수 있을 때에만 유의미한 과학의 이론이라는 근대의 실증주의적 주장이 논박되고 과학의 본성이 과학자 공동체전통과 과학의 역사 그리고 사회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과학과 신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최근의 경향들에 주목하면서 전통과 합리성의 관계에 대한 간학문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합리성을 추구하게 된 이유로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 20세기 말부터 전개된 범학문적인 경향은 합리성 추구의 절대적 모델인 토대주의의 붕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신학이 근대 이후의 교리주의가 토대를 이루었다면 계몽주의 이후의 자연과학은 관찰과 경험에 의한 실증주의에 그 토대를 두었다. 이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전제로 전통을 중심으로 합리성을 추구할 것인가 혹은 전통을 넘어서는 보편적 연관성에서 합리성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제가 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첫째는 린드벡(G. Lindbeck)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으로서 이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

독교의 공동체전통을 중시하고 교리를 비롯한 신앙의 규칙들을 통하여 사회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대체로 과학자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는 패러다임 이론을 주장한 토마스 쿤¹⁾과 연관지어 논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머피(N. Murphy)는 신앙의 전통적인 핵심적 진리 주장들을 중심으로 하되 여러 가지 신학 이론들과 교회의 실천들을 포함하고 타 학문의 성과와 아울러 사회적 영향력과의 관계성까지 고려하는 전체론(holism)을 통한 합리성을 추구한다. 머피도 과학이론들 간의 선택 기준을 강조하는 라카토스²⁾의 연구프로그램 이론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 두 그룹의 논지들을 비교하되 전통과 사회적 합리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미래에 신학을 하나의 간학문 혹은 통합학문의 한 방식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쿤은 과학이론이란 당대의 과학자 사회의 전반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정상 패러다임으로 존재하다가 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의 변칙사례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패러다임과의 경쟁이 이루어지다가 기존의 패러다임이 변칙사례를 견디지 못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혁명적 이행이 이루어지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즉 쿤은 당시의 실증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이론의 누적적 발전이론을 패러다임이론으로 대체한 것이다. 패러다임이론을 다루는 토마스 쿤의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과학혁명의 구조』(토머스 S. 쿤 지음/김명자 역, 서울: 까치, 2007)와 신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미 『현대신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한스 쾰링, 데이비드 트라시 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한스 쾰링과 트레이시 등의 신학자들은 현대신학의 미래를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론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2) 라카토스(Imre Lakatos)는 쿤의 패러다임의 혁명적 교체이론은 경쟁이론들 간의 비교에 있어서 과학자 공동체 중심의 패러다임 이론이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상대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반대하며 연구프로그램이론을 제창하였다. 그는 공동체의 핵심적 이론과 그 외부의 여러 이론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며 경쟁하는 연구프로그램 이론들 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선택기준을 통한 과학이론의 연속성과 발전의 가능성을 도모하였다.

II. 전통과 합리성의 관계에 대한 신학과 과학철학의 공동적 출발점

기독교 신학은 주로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공동체와 그 전통을 위한 학문인가 혹은 기독교 공동체를 넘어서 그 합리성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대신학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미 우리는 자우터(G. Sauter)와 판넨베르크(W. Pannenberg)의 신학의 학문성 논쟁에서 그 중요한 발단을 발견한다.³⁾ 이 논쟁에서 자우터는 신학은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공동체의 하나님에 대한 단언적 진술 혹은 고백을 바탕으로 그 합리성을 논하는 반면에 판넨베르크는 신학을 기독교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 타 학문을 포함한 하나의 보편학문으로서 그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신학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은 최근에 들어서 전통과 공동체의 규칙에 입각하여 신앙을 논의하고 이 규칙에 의해 세상사회에 대한 시각

3) “신학이 과학 혹은 하나의 학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해 판넨베르크는 이성이라고 말하고 자우터는 고백적 진술(Reden von Gott) 보다 정확히 말하면, Reden von Gottes Handeln(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진술이다) 이라고 대답한다. 이 개념은 소위 신학 전문용어로서의 원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 용어에 대한 한국어 이해는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말하다’ 혹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진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진술’등으로 번역된다.(최성수 편역,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학문인가: 판넨베르크와 자우터의 논쟁』 한들출판사, 2004, 17) 여기에서 고백적 진술(Reden von Gott)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말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계시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일차적으로 그것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백되는 것이다. 자우터에게 있어서 고백적 진술 혹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언급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신학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신학적 논의의 최종적인 목표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진술”이므로 이것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반해 판넨베르크에게 있어서 Reden von Gott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로서 “주장”의 성격을 갖는다. 즉 논증으로 판명이 될 수 있는 명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백을 포함한 모든 신학적 진술이 가설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Ibid., 18-9.) 이러한 차이는 신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방법론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

을 맞추려는 린드백의 시도와 처음부터 합리성을 위하여 신앙의 전통과 공동체의 실천, 그리고 타 학문과 사회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머피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큰 흐름은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일차적인 것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를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를 사회와 소통하려는 합리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소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공동체의 전통과 합리성에 대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교리주의에 비판적이다. 무비판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교리적 명제들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는 교리주의는 주관적인 관점을 채택하기로 정해놓은 사람들에게만 설득력과 의미가 있으며 미리 가정된 공리들로부터 신학자들이 내놓는 명제들에 대해 개인의 확신을 논증해주기만 하면 된다.⁴⁾ 이러한 주장은 교리적 문장 하나하나가 모든 인간의 경험과 일대일로 검증될 수 있다는 왜곡된 이원론⁵⁾의 독단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결코 진리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 기독교 전통의 진리들은 수많은 세월동안 신학이론과 신앙의 경험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얻어지고 정착된 것이다. 몇 가지의 문장으로 화석화된 교리주의는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현실의 바른 신앙도 가져올 수 없다. 그렇다고 신학고유의 주장들

4) J. W. V. Van Huyssteen, Systematic theolog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the need for methodological and theological clarity in theology,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no. 34, Mr. 1981, 3-16., 4.

5) 근대 이후로 학문을 지배해 왔던 기본적 토대 중 하나는 이론과 실재는 다르고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물론 이론이 실재와 동일하게 일치할 수 는 없으나 분명히 서로 상호간 의존적이며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토대는 하나의 이론 문장이나 주장이 반드시 실재의 사물이나 사건과 일대일로 대응되어야 진리라는 주장이다. 이것도 오류이다. 그 어떤 한 이론도 단독으로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단 하나의 실재나 사건과 대응되어 평가될 수 없다. 모든 문장은 서로 다른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를 우리는 토대주의가 가진 이원론(dualism)적인 독단이라고 부른다.

의 명료함을 추구하는 비판신학이 말씀의 권위와 전통을 훼손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경우에서도, 권위와 전통의 긍정성이 신학적 주관주의를 대안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⁶⁾ 이러한 교리주의는 진리를 왜곡하며 오류인 것이다.

또한 교리주의와 더불어 기독교의 진리를 인간의 보편적 경험에 두려는 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근대이후의 과학의 경험적 실증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들은 과학적 진술이 역사나 사회와는 무관하게 언제나 관찰과 실험의 증거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언제나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이론이 해석에 얽매이는 반면에 중립적 관찰은 이론과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순수하고 올바르게 평가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여 헨슨은 순수한 중립적 관찰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찰자의 신념, 지식, 이론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관찰은 항상 선택적이며 이론 의존적이다. X에 대한 관찰은 X에 앞선 지식에 따라 행해진다.”⁷⁾ 오히려 과학이론 전체가 하나의 통합체로서 관찰과 이론적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된다.⁸⁾

6) *Ibid.*, 5. 과학철학의 관점에서부터 우리는 신학의 기본적 전제들에 대한 탐구가 신학적 탐구의 원천을 비판적으로 결정하고 신학적 언명들의 구조와 영역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신학적 언명들의 가설적 본성과 신앙언어의 확실성 간의 분명한 차이점을 강조하며 따라서 과학철학은 조직신학적 언명의 구조의 문제로부터 그 언명의 대상과 신앙언어 간의 관계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때때로 어떻게 신학적 언명들이 통제되고 테스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묘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Ibid.*, 7.

7) N. R. Hanson, *Pattern of Discove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8), 19. 안택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론'으로 보는 기독교 신학이해: 쿤의 패러다임 변혁론에서의 '공약불가능성'과 연속성의 논지를 중심으로」, 『신학논단』, 제 70집, 2012, 연세대학교출판부, 108.

8) 신중섭,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 서울: 서광사, 1992, 54. 안택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론'으로 보는 기독교 신학이해: 쿤의 패러다임 변혁론에서의 '공약불가능성'과 연속성의 논지를 중심으로」 *loc. cit.*, 109.

관찰과 실험이 이론 의존적이라는 헨슨의 주장은 관찰이 더 이상 과학의 이론과 법칙을 지배하는 확고한 경험적 토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를테면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케플러와 천동설을 주장했던 티코가 같은 날 해돋이를 보았다고 해도 과연 같은 것을 보았겠는가는 반문이 나온다.⁹⁾ 맹인이 아닌 이상 어린아이도 물리학자의 실험결과는 보지만 그것을 물리학자처럼 이해하지 못하며 X-ray사진을 보는 의학도의 견해는 동일한 사진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해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면 이론적 지식의 변화가 의학도의 관찰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본다.¹⁰⁾ 이처럼 기독교의 교리주의가 기독교 신학의 토대라고 이해하는 주장이 잘못된 것처럼 이론 혹은 전통과 분리된 과학자의 실증주의적인 관찰과 실험의 토대주의도 잘못된 것이다. 이 같은 비토대주의적 관점에서 이론 혹은 전통과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면에서 과학철학의 관점과 접목하여 신학의 학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 먼저 우리는 린드벡의 교회 공동체 신앙의 규례라는 전통에 의한 신학의 합리성 논증은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과 매우 잘 어울리며 전통과 합리성에 대한 간학문적 한 예를 보여준다.

9) *Ibid.*, 54.

10) *Ibid.*, 57, M. Polanyi, *Faith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15. 참조, 안택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론'으로 보는 기독교 신학이해」, *op. cit.*, 110.

III. 린드백¹¹⁾의 신앙의 규례들과 공동체론

린드백에게 있어서 신학은 신앙의 언어로 된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주로 성경을 비롯한 교회전통에 의지한다. 린드백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 전통은 세상을 보는 하나의 렌즈와 같이 작용한다. 그래서 그는 성경 밖의 새로운 개념들로 신앙을 재 기술하기 보다는 종교언어를 가르치려고 한다.¹²⁾ 신앙의 언어를 이론적인 것과 이론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린드백의 대안은 기독교를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이야기 혹은 내러티브(narrative)로 보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전통적 교리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실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한다. (교리주의가 아닌) 교리는 그 자체가 세상에 대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나오는 어휘들을 규제할 문법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¹³⁾ 종교란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전통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 틀은 이야기, 윤리적 명령과 예배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사실들을 기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하학적인 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교리 전통적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실을 기술하고 우리의 확신을 표

11) 린드백으로 대표되는 신학적 조류를 우리는 포스트 자유주의 혹은 탈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고 이들이 주로 예일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예일학파”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성서의 이야기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 신학자들 혹은 내러티브 신학자들(Narrative Theologians)”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바르트 신학에 가장 영향을 받았지만 결코 바르트의 신학으로 회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성서의 이야기적 성격과 교리적 해석의 공동체성을 강조하였다. 신학적 입장으로는 주로 모던의 계몽주의와 토대주의(foundationalism) 그리고 실증적 증거주의(evidentialism)에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남정우, 「세계신학의 동향: 포스트자유주의 신학과 조지 린드백」 『기독교사상』 46(5) 2002, 146-47.)

12) B. A. Gerrish, The nature of doctrine, *Journal of Religion*, 1988, 92.

13) Stefan Eriksson, Refining the distinction between modern and postmodern theologies: the case of Lindbeck, *Studia Theologia*, vol 56, 2002, 155.

현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할 방식을 얻는다.

린드백에 의하면 신학이란 성서 밖의 범주들을 통해서 성서를 해석하기 보다는 성서의 관점에서 세계를 재 서술하는 것이다. “세계가 성서의 본문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세계를 흡수한다.”¹⁴⁾ 따라서 세상의 다른 고전적 사상들과 역사적 연구 등은 성서읽기를 위한 참조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성서는 스스로 해석하며 통일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피조물과 더불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그의 목적의 보도가 성서의 이야기이고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현존에 의해 절정에 이른다.”¹⁵⁾ 이처럼 성서의 이야기가 세계의 실재 안에서 끊임없이 형성된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설에 영향을 받은 린드백은 교리와 전통이 신앙의 담론과 활동을 다스리는 게임의 규칙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¹⁶⁾ 그리고 이러한 규칙의 근간을 이루는 교회전통은 신학을 위한 가장 적절한 환경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학문이나 혹은 분야들을 사용하는 일은 성경의 이야기가 제공하고 있는 일차적인 틀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⁷⁾ 그는 어떻게 교회공동체들이 서로 경쟁관계

14) George Lindback,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Philadelphia: Westminster, 1984), 118.

15) *Ibid.*, 121. 남정우, 「세계신학의 동향-포스트자유주의 신학과 조지 린드백」, *Op. cit.*, 154.

16) 교리라는 문법에 의해 규제되는 의미가 있는 신앙의 어휘들은 삶 속에서도 의미있는 언어로 나타난다.(G.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loc. cit.*, 33) 교리들과 신조들에 의해 형성되는 기본적인 종교적 확신들 특정 종교에 있어서 문법으로써 작용한다.(*Ibid.*, 79ff) 린드백은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용어를 사용하여 신앙을 “삶의 양식(Forms of Life)과 상호 연관된 일련의 언어게임”(*Ibid.*, 51)으로 이해할 수 있다. (Stefan Eriksson, Stefan Eriksson, Refining the distinction between modern and postmodern theologies: the case of Lindbeck, *Op. cit.*, 156)

17) George Lindback,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loc. cit.*, 124.

에 있는 교리적이고 해석학적인 주장들에 적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리의 발전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묻는다. 그는 교리들이 교회적으로 (오류 가능성 없이) 규범적이라는 견해를 변호하기를 원한다.¹⁸⁾ 이러한 린드백의 교리이해는 고대로부터 유래된 전통에 따라 이루어진다.

린드백에 의하면 (교리주의가 아닌) 교리들은 신앙의 담론과 활동을 다스리는 전통적인 규칙들이다. 교리들과 신조들에 의해 형성되는 기본적인 종교적 확신들은 특정 종교에 있어서 문법으로써 작용한다.¹⁹⁾ 따라서 신학에서의 합리성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것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정식화될 수 없는 독특한 기술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린드백의 주장은 그가 ‘신앙의 규례(regulae fidei)’라고 부르는 교리들의 의미와 기능이 교회와 세계관과의 관련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부터 유래한다. 이것이 세계관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사회과학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린드백은 “신앙의 규례”를 교회의 합의(*consensus ecclesiae*)와 동일시한다. 물론 린드백은 의견일치를 이를 단 하나의 기준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경험적으로 인지가능한” 사례들을 얻기 위해 사회과학에 호소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신앙의 규례들”은 과학자들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합의”가 결과할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규제할 신앙의 패러다임이다. 교리는 신앙의 패러다임 내에서의 합의를 천명하지만 인간존재에 대한 좀 더 일반화된 이해가 될 수 있는 교회 밖의 지시체가 없다는 것이다.²⁰⁾ 린드백의 공동체의 합의에 의한 신앙의 규례가 가지는 역할은 쿤의 패러

18) Paul Rigby, John Van Den Hengel, Paul O’Grady, The nature of doctrine and scientific progress, *Theological Studies*, 52 1991, 669.

19) George Lindback, *Nature of Doctrine*, 79ff.

20) Paul Rigby, John Van Den Hengel, Paul O’Grady, The nature of doctrine and scientific progress, *Op. Cit.*, 672.

다임 이론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린드백과 마찬가지로 쿤에게 있어서 과학의 합리성은 이론의 검증이나 반증이 아닌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하면 과학적 발견들은 그것이 거부되거나 지지를 받는 강력한 기준으로서의 신속한 관찰이나 중립적 판단규칙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체적인 일치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비록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규칙이 없지만 과학적 주장을 뒷받침할 ‘좋은 근거들’은 여전히 존재한다.²¹⁾ 이러한 좋은 근거들로 형성된 ‘패러다임’이 합리성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의 실천이다. 즉 과학적 지식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집단’의 산물이다. 그 지식을 산출하는 집단의 특수한 본성에 대한 지시체가 없이는 그 지식을 발전시킨 집단 안의 효능성과 방식도 이해할 수 없다.²²⁾ 토마스 쿤은 과학적 신념도 종교적 신념의 체계를 얻는 것과 같이 획득한다고 시사한다.

쿤은 이론을 더 광범위한 그 시대의 과학전체 즉 “패러다임(paradigm)”으로 확장한다. 패러다임은 ‘지동설’과 같이 관찰자가 보는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론과 관찰의 해석이 이루어진다. 기독교 전통과 같이 과학전통도 시초에는 의심과 회의로부터 자유롭다. 쿤은 이를 “정상(normal)” 전통 혹은 패러다임으로 특성화한다. 신학과 과학에서 이러한 정상전통 혹은 정상 패러다임은 합리적 탐구의 기준 혹은 규범을 제공한다. 따라서 과학적 신념 혹은 종교적 신앙체계를 획득하는 일은 정상 전통 혹은 정상패러다임을 신뢰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전대인들로부터 배우는 훈련을 통해 얻는다.²³⁾

21) Gregory G. Grimes, Paradigm shifts revisited: a deeper fundamental theological engagement with the philosophy of science, *The Heythrop Journal*, LII, 2011, 182-83.

22) Gary B. Deason, “Post-Paradigm,” *Christian Century*, 95, no 40, Dec., 1978, 1184-85.

23) Michael G. Harvey, Science, rationality and theology, *Journal of Religion*, 87, no

신학과 교회의 실천과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과학탐구의 모형은 과학자들이 보거나 관찰하는 것을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하는 통상의 해석방식을 배운 결과이다. 따라서 문제의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과학자는 대상을 보거나 그 본 바를 체계화 하는 방법을 정상 패러다임에서 얻는다.²⁴⁾ 이처럼 과학자들이 관찰하는 방식은 그가 기존의 패러다임에 속한 체계와 패턴, 배열 안의 시각영역에서 사물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훈련받은 결과이다. 즉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맥락에 의해 해석이 결정되고 이는 패러다임 안에 구현되어 세상을 보는 방식을 획득한 이후에 일어난다. 이론의 조직화도 이러한 패러다임에 반응하는 법을 배운 이후에 해석이 일어난다.²⁵⁾ 쿤의 패러다임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공동체도 그 실천적인 방식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전통을 배우고 익히면서 이루어 낸다.

이처럼 쿤은 우리가 정상 패러다임에 비판적이기 이전에 정상 패러다임이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조직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물을 보는 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도 결정한다. 그래서 정상 패러다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점이 되면 우리는 그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되지만 여전히 의심, 변칙, 상충된 증거가 있어도 정상 패러다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²⁶⁾

쿤에게 있어 과학은 패러다임에 의존적 경향이 강하다면 린드벡에게는 신앙의 규례인 전통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린드벡에게 교리와 전통은 외부세계를 이해하는 틀이 된다. 교리들은 문법처럼 언어의 규칙을 제공

2 Ap. 2007. 230.

24) N. R. Hanson, *Patterns of Discovery*, *op. cit.*, 13.

25) Michael G. Harvey, *Science, rationality and theology*, *op. cit.*, 231.

26)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194, 138, Michael G. Harvey, *Science, rationality and theology*, 232.

한다. 비록 진리주장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지만 “어떤 것을 배제하고 어떤 것은 허용함으로써 진리주장들을 조절하는(regulate) 역할을 한다.”²⁷⁾ 교리들은 공동체의 유익과 그 정체성에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신앙이나 관례들과 연관된 권위를 가진 공적인 규칙이다. 기독교 공동체가 교리라는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신학적인 설명이나 의사소통, 그리고 신앙의 변호’ 등이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교리는 기독교의 정체성과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체계화시키며 유지할 수 있는 규범인 것이다. 따라서 이 규칙들이 우리의 문화를 형성하고 말과 행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²⁸⁾

종교(신앙) 언어는 개인들이 살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기술들의 총체적인 표현으로서 린드백에게 하나의 칸트적 선형성으로 기능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사적인 언어가 불가능한 것처럼 사적인 종교언어도 없다. 즉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언어를 교회를 비롯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것이 그 공동체의 특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²⁹⁾ 새로운 문화나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신앙의 언어체계가 그

27) G. Lindback, *The Nature of Doctrine*, op. cit., 19. 김주한, 「종교에 대한 문화-언어적 접근 방법 연구-조지 린드백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47(5), 2003, 288.

28) G. Lindback, *The Nature of Doctrine*, 18, 74, 76, 김주한, 「종교에 대한 문화-언어적 접근 방법 연구-조지 린드백을 중심으로」, loc. cit., 289)

29) G. Lindback, *The Nature of Doctrine*, 33, 김주한, 「종교에 대한 문화-언어적 접근 방법 연구-조지 린드백을 중심으로」, 290) 린드백에 의하면 종교(신앙)은 하나의 문화 혹은 언어 체계와 같아서 한 사회의 포괄적인 해석의 틀(a comprehensive interpretive framework)로 기능한다. 이러한 해석의 틀은 우주와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것에 대해 규명하고 그 궁극적인 것과의 관계에서 삶을 질서지우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틀이다.(G. Lindback, *The Nature of Doctrine*, 32-33) 따라서 신앙인 된다는 것은 한 종교문화-언어권에서 그 종교문화-언어를 익히고 내재화하여 능통해지는 것이다. 즉 그 종교의 우주론과 인간의 삶, 도덕적 실천 등을 구성, 조직, 운용하는 논리 형식과 문법체계를 익히고 내재화하는 것이다. 이 틀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이라는 형식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가 진리로 의미를 갖기 위한 내적 논리인 것이다. (G. Lindback, *The Nature of Doctrine*, 35, 김연희, 「조지 린드백의 후기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고찰」, 『신학전망』, 172, 2011, 12)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유연하게 대처하여 의미를 이끌어내는 역동적 체계이다. 사회 변화에 따른 변칙적인 상황이나 조건들이 나타날 때 그에 맞추어서 그 체계의 틀도 변화한다.³⁰⁾ 린드백의 신앙언어는 문화의 변혁에 유연하며 대처능력도 뛰어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고유의 틀인 교리를 기독교 공동체 밖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린드백의 합리성 논의의 중심주제로 떠오른다.

실제로 린드백은 교리가 진리가 되는 조건으로 교리와 그 교리를 내면화한 기독교인들의 현실적인 삶이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린드백은 1차 언어인 존재론적 진리와 2차 언어에 속하는 체계내적 진리 혹은 범주적 진리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³¹⁾ 교리 명제와 언어 밖의 현실적 삶과의 부합됨으로 성립되는 존재론적 진리와는 달리 체계내적 진리 혹은 범주적 진리는 기독교의 체계 내에서의 진리를 말한다. 체계내적 진리는 공동체의 규칙과 같은 것으로 언어의 문법의 역할을 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성립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님이시다”라는 명제는 체계내적으로만 진리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참이다. 그러나 이 명제가 이교도를 죽이는 십자군의 정복을 정당화시켜 준다면 이는 진리가 될 수 없다. 즉 교리가 진리가 되는 조건은 신앙인의 삶과 실천적으로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리는 실천적 삶의 상황에 의존적이다.³²⁾

여기에서 우리는 린드백의 이중성을 보게 된다. 공동체 내에서의 교리

30) G. Lindback, *The Nature of Doctrine*, 82. 김주한, 「종교에 대한 문화-언어적 접근 방법 연구-조지 린드백을 중심으로」, 291.

31) Jay Wesley Richard, Truth and meaning in George Lindbeck's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us Studies* 33, 1997, 48-49, G. Lindback, *The Nature of Doctrine*, 64, 김연희, 「조지 린드백의 후기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고찰」, *loc. cit.*, 17)

32) G. Lindback, *The Nature of Doctrine*, 35, 김연희, 「조지 린드백의 후기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고찰」, 17)

의 체계내적 진리를 말하면서도 공동체를 넘어 외부 사회에 적용하는 존재론적 진리도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체계내적 진리가 성립되는 조건에서 의미를 갖는 신학과 교리는 사회의 존재론적 진리인 1차 언어적 사용을 위한 2차적 담론이라는 데 있다.³³⁾ 더 심각한 문제는 체계내적 진리관이 신학적으로 나타난 그의 본문-내적(intra-textual) 해석학에 있다. 즉 기독교는 기독교의 체계의 문법인 교리를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만이 가장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린드백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성경 외적인 문화나 역사, 심리학 등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 내에서만 가능하다.³⁴⁾ 이것은 1차 담론인 존재론적 언어와 다르다.

린드백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1차 언어와 2차 언어의 구분법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구분법은 그로 하여금 실증주의적 과학관의 공격으로부터 종교의 독자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의 합리성을 문법으로서의 교리를 비롯한 전통에 묶어놓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더욱이 2차 언어인 체계내적 진리들을 세상에서의 삶의 실천적 측면과 관계되어 있는 존재론적 진리와 연결시키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2차적인 체계내적 진리는 1차적인 존재론적 진리와 별개로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론적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성립하고 오히려 2차적 진리가 1차적, 존재론적 진리의 근거가 되고 말았다.³⁵⁾

33) G. Lindback, *The Nature of Doctrine*, 69.

34) G. Lindback, *The Nature of Doctrine*, 118. 이연희, 「조지 린드백의 후기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고찰」 18-9)

35) Adonis Vidu, Lindbeck's scheme-content distinction: a critique of the dualism between orders of language, *Journal for the Study of Religious and Ideologies*, 2004, No. 9, Winter, 109-110. 에릭손에 의하면, 린드백은 언어를 위한 규칙(rule for a language)과 언어 내의 규칙(rule in a language)간의 중대한 차이점을 간과하여 간신히 문법적 규칙의 특성을 언어 내의 규칙에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즉 린드백이 선호했던 "규칙들"은 그것들이 속하지 않은 논리적 위치에 놓여져서 그래서 이러한 그의 전략

이를 우리는 린드벡의 신앙주의(fideism)라고 부른다. 결국 그의 합리성은 2차적인 체계내적 진리에 묶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차 언어와 2차 언어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론(holism)의 관점이 필요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님이시다”라는 명제가 구원에 핵심적이라는 주장은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에서만 사실로 연결되는 것이지 이 명제가 곧바로 사회에서 1차 언어의 존재론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³⁶⁾ 존재론적 진리를 주장하는 1차 언어든지 기독교 공동체의 전통적 핵심적 교리에 관한 신앙의 규례로서의 2차 언어의 주장이든지 모두가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사실들에 의존한다. 즉 기독교 교리와 전통만이 자존적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린드벡의 신앙주의는 기독교 공동체를 넘어선 사회적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전통을 거부하면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기준이 흐려져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결과 합리성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즉 공동체의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 합리성의 긍정성을 확보하느냐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킨타이어(Alisdair MacIntyr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킨타이어는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을 앞세워 상실하게 된 고대 희랍부터의 전통에 주목한다. 그 전통은 인류의 역사에서 간과되어 왔던 윤리적 문제이다. 전통이 가진 맥락을 전혀 모른 채 전통의 한 조각만을 떼어내어 그에 대해 저마다의 해석을 내리는 것은 전통을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을 오늘날의 맥락에서 그 유효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복원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즉 기독교 전통도 그 자체로

은 그로 하여금 신앙주의라는 혐의를 받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Stefan Erikson, Refining the distinction between modern and postmodern theologies: the case of Lindbeck, *Studia Theologia*, vol 56, 2002, 158.

36) Adonis Vidu, Lindbeck's scheme-content distinction: a critique of the dualism between orders of language, *loc. cit.*, 119)

세상 판단의 틀로 여기기보다는 전통이 어떻게 현재에까지 연속성 상에서 이어져 왔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오늘의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전통으로 구성되는 기준과 그 이외의 기준들에 대한 합리성의 평가에서 오늘날의 전통의 덕은 경쟁에서도 이겨내었다고 본다. 즉 위기에서도 스스로를 이야기할 어떤 전통의 능력은 다른 전통들의 능력보다 낮거나 못할 수 있는데 그 중 덕(virtue)을 통한 아리스토텔레스기독교 전통이 여전히 “내재적 선으로서 탁월한 전통”³⁷⁾이라는 것이다.³⁸⁾ 전통에 매인 합리성(신앙주의)의 전통과 무관한 합리성(상대주의)를 모두 배격하는 매킨타이어는 전통-초월적(tradition-transcendental) 덕의 실천을 주장한다. 매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된 덕의 실천이 신약성서와 같은 논리적 구조와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 구조는 바로 덕의 실천이 인간의 텔로스(궁극적 목적)의 성취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의 기독교의 인간선은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선을 텔로스로 갖게 되었다고 본다.³⁹⁾ 이러한 탁월한 덕의 실천이 간과된 현실에 대해 매

37) 매킨타이어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인간의 덕이란,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성질로서, 그것의 소유와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 그것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의 성취를 방해하는 그러한 성질이다.”(알래스테어 매킨타이어, 이진우 역, 『덕의 상실』 문예출판사, 1997, 282.) 이때 덕이란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있는데, “외면적 선이란 그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성취한 사람의 소유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외면적 선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더욱더 줄어든다. 반면에 내재적 선은 실제로 탁월하고 자 하는 경쟁의 결과로서 그것을 성취하게 되면 그 실천에 참여한 공동체 전체의 소유가 되고 선이 된다.”(Ibid)

38) Gregory G. Grimes, Paradigm shifts revisited, 187. Alasdair MacIntyre, *Whose Justice? Which Rationalit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8) 참조.

39) 알래스테어 매킨타이어/이진우 역, 『덕의 상실』, *op. cit.*, 273.

킨타이어는 덕의 상실을 개탄하며 역사적으로 경쟁하는 여러 이론들 가운데 덕의 실천을 통한 기독교 문화가 더 선한 것으로 선택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미래에도 더 발전된 방식으로 다양한 문화전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킨타이어의 주장은 린드백의 1차 언어와 2차 언어의 이원론을 극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맥킨타이어의 주장과 더불어 특정 패러다임 혹은 교리전통에 대한 선택적 지지의 결과 제기된 이원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신학 발전의 객관적 기준들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견지하려는 입장으로 우리는 머피의 전체론적 연구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IV. 머피⁴⁰⁾의 전체론적 연구프로그램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그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된 교리를 비롯한 2차 언어인 신앙의 규례를 통하여 신앙에 대한 합리적 논거를 얻어내고 그것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넘어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해하려는 린드백과는 달리 1차 언어와 2차 언어의 일치를 추구하는 합리성에 의해 전통의 재발견을 주장하는 맥킨타이어에 동의하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위한 합리적 지지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머피에 주목한다. 즉 2차 언어인 공동체 전통의 이론적 문법은 그저 그 자체로서 기독교 밖의 사회에서 의미와 합리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과 기독교 외부의 문화와 지식체계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행동과 그 행동

40) 머피(Nancey Murphy)는 미국의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와 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분석철학과 과학철학의 논리를 중심으로 조직신학, 우주론, 윤리학을 아우르는 방법론적 신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뇌 과학과 인지과학의 문제를 중심으로 신학과 과학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Pasadena 소재의 Fuller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경험의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전체로서만 의미를 얻는다. 전통의 이론과 전통 외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행동의 경험이 실줄과 날줄이 되어 하나의 직물을 짜 나가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다. 이론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이론과 현실의 삶의 행위들이 서로서로 부딪히면서 공동체의 전통들이 형성되기도 하고 새로운 전통들이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린드백의 용어로 1차 언어와 2차 언어가 하나의 전체로 인식되고 합리성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체론이라고 부른다. 콰인의 전체론에 의하면 이론과 관찰문장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순수 직접경험도 순수 언어문장도 존재할 수 없다. “진리는 일반적으로 언어와 언어 외적인 사실 둘 다에 의존함이 명백하다.”⁴¹⁾ 또한 전체론(holism)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속해 있는 문맥이나 체계를 강조하고, 이 문맥에 영향 받지 않은 실재에 대한 순수경험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문맥과 체계는 기독교전통만이 아닌 사회와 문화 전반에 관련된 전체적 체계를 의미한다. 콰인에 의하면 하나의 이론 문장은 그것이 속한 체계와 그물망으로 연관되어 있고 언어외적인 세계와 상호 연관되어 경험과 언어가 하나의 전체로 인식된다.⁴²⁾ 콰인의 모델을 수용한 티만(Thiemann)은 2차 언어인 신학이 1차 언어인 공동체의 신앙과 실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신학은 합리적인 설득의 과정 내에서 논쟁 중인 신앙과 각종 거미

41) W.V.O Quine, Two Dogmas of Empiricism in 콰인지음/허라금 옮김, 『논리적 관점에서』 (서울: 서광사, 1993), 36.

42) 콰인의 전체론에 의하면 어떤 이론문장도 그것이 속한 이론체계와 독립해서 개별적인 경험내용을 갖지 않는다. 한 이론문장은 다른 이론문장들과의 거미망의 연관관계 안의 연계에 의해 경험을 만날 뿐 스스로 독자적으로 경험과 1:1 마주하지 않는다. 하나의 이론문장은 거미망 연관관계를 통해 경험을 이루고 관찰문장이 된다. 그러나 관찰문장이 순수경험의 영역을 넘어서 전체이론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고 있어서 선택이 불가하다는 식의 이론 의존적 전체론 이해를 콰인은 경계한다.(김혜숙, 「Quine의 경험주의와 전체주의」, 『철학』, 한국철학회, 32, 1989, 11월, 195-96.)

망에 상호연관된 신념들 간의 관계를 추구하는 전체론적인 정당화의 방식을 차용한다.⁴³⁾ 이러한 콰인의 전체론은 머피가 신앙주의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인식적 틀을 이룬다.

머피는 지식에 대한 논거들은 개념들과 주장들, 경험들이 하나의 전체로 상호 연관되어 누적적인 결과를 늘어뜨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물망” 혹은 “거미망”으로 되어 있다는 콰인의 인식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망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늘 변화에 열려있는 라카토스의 방식으로 수정하여 머피 고유의 전체론적 인식모델을 발전시킨다.⁴⁴⁾ 머피는 전체론적 인식모델을 가지고 복합적인 지식의 체계에서 고유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관념들과 실천들을 가지고 있는 전통과 합리성을 연속성 안에 놓음으로써 어떤 특정 주장들의 “그물망”이 다른 지식체계보다 (매킨타이어가 말하듯) “합리적으로 탁월하게” 되었다고 판결내릴 수 있다고 본다.⁴⁵⁾ 머피가 시도하는 전체론적 인식론 모델은 2차 언어인 전통과 존재론적 언어인 1차 언어에 적용할 합리성을 하나의 전체로 연속성을 가지고 성장 발전을 도모할 구체적인 과학적인 논증방식에서 나타난다.

머피에 의하면 신학은 더 이상 그 신빙성을 확립하기 위해 ‘권위’라는 전통적 원천에 기댈 필요가 없다.⁴⁶⁾ 그 대신 머피는 신앙의 합리성을 과

43) N. Murphy, *Theology in the age of scientific reasoning*,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203

44) N. Murphy, *Beyond liberalism and fundamentalism : how modern and postmodern philosophy set the theological agenda*,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89. 머피에 의하면 콰인의 전체론은 토대주의를 비판하는데 매우 유익하지만 경쟁하는 다양한 거미망들을 고려하고 그 중에서 특정한 거미망을 선택한다고 할 때 자칫 상대주의적 경향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라카토스식의 방식으로 수정하기를 주장한다. *Ibid.*, 98.

45) *Ibid.*, 106-09. 이 거미줄 망은 결코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연하며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며 그 내부의 변칙사례들로 인하여 그리고 초기에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력 혹은 도전에 의해 야기된 “인식론적 위기들”에 잘 적용할 수 있을 때에만 발전할 수 있다.

학적인 논증방식에서 찾는다. 머피가 보는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은 신학적 논증과 과학적 논증의 유사성에 반영되어 있다. 머피에 의하면, 신학은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방법론적으로 과학과 구별이 불가능하다. 그의 방법론은 라카토스의 과학에 대한 새로운 역사주의적인 이해로부터 정당화된다.⁴⁷⁾ 쿤은 그의 패러다임 이론에서 과학의 역사가 합리적인 진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교체의 연속이라고 표현했으나 라카토스는 패러다임과 더불어 과학의 합리적 진보도 옹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쿤이 린드백의 신앙주의와 유사한 패러다임 내적인 논리에 갇혀 있다면 라카토스의 방식은 보다 전체론적이며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라카토스에 의하면 과학자들은 안정된 핵심이론과 변하는 일련의 보조가설들 안에서 작업하며 이 이론과 가설들은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허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라카토스는 과학의 역사는 연속되는 패러다임이 아닌 진보 혹은 퇴보하는 연구 프로그램들의 경쟁이라는 말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⁸⁾ 연구 프로그램은 언제나 일련의 이론들과 일단의 데이터들로 구성된다. 그 중 “견고한 핵(hard core)”이라 부르는 이론은 연구프로그램의 중심축이다. 이 핵심이론 밖에는 그 이론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능하게 할 충분한 정보들이 함께 더해진 일련의 보조가설들이 있다. 이 보조가설들은 견고한 핵 주변에 “보호대”를 형성하며 잠재적으로 견고한 핵 이론을 반증하려는 자료가 발견될 때 수정되어 견고한 핵을 보호한다.⁴⁹⁾

46) *Ibid.*, 104, 109.

47) N. Murphy, *Theology in the age of scientific reasoning*, *Op. cit.*, 192, 198.

48) *Ibid.*, 59.

49) Imre Lakatos,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ed. by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91-196.

라카토스에게 있어서 과학의 합리성은 경쟁하는 연구 프로그램 간의 선택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연구 프로그램 이론은 신학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본성에 대한 신앙이 견고한 핵으로 남아있고 현실에서의 문제가 되는 관찰자료들에 대처하기 위해 신학적 보조가설들이 연속적으로 수정되거나 교체되거나 혹은 증보되어가는 일련의 복합적 이론들로 이루어진다.⁵⁰⁾ 과학 이론의 수용을 위한 라카토스의 제안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 경쟁자보다 더 발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을 때, 즉 참신한 사실들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더 잘 논증할 수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은 다른 것보다 더 선택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⁵¹⁾ 연구프로그램들은 새로운 데이터를 고려하기 위하여 계속 확장된다. 이 연구프로그램들이 누적적인 방식으로 될 때 추가되는 것들은 더해진 지식으로 간주된다.

머피는 라카토스적 전체론을 바탕으로 그의 논지를 통합한다.⁵²⁾ 머피는 신학, 과학철학, 종교사회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하나의 전체로서 옹호하며 신학자의 주장에 대한 평가를 신학의 기본적 이론과 더불어 신앙의 실천과 사회적 영향력을 아우르는 합리성에 집중하도록 한다. 머피

50) N. Murphy, "Acceptability Criteria for work in Theology and Science," *Zygon*, vol. 22, no. 3 (Sep. 1987), 279-297, 285.

51) *Ibid.*, 286.

52) 머피에 의하면, "신학적 연구 프로그램에는 과학사에 대한 라카토스의 연구와 신학사에 대한 나(머피)의 연구는 신학자들이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어떤 조직적인 생각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그런 후, 견고한 핵은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에 관계되는 가장 최소한의 것을 어떻게 요약하는가에 대한 신학자들의 판단을 담고 있다... 그 최소한의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안의 계시와 같은 것들이다." 만일 성차별이 죄악된 일이며 예수가 여성을 차별했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거나 예수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적절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피오렌자와 같은 여성신학자들은 예수 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더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견고한 핵의 주장은 반박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Theology in the age of scientific reasoning, 184.)

는 기본적으로 불가지론과 무신론의 시대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증거기준들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위한 합리적 지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⁵³⁾ 특히 흠 이후에 그리고 현대과학의 출현으로 널리 유포된 기독교 신앙에 관한 회의주의를 몰아내려고 한다. 머피는 신학이 관념의 표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신학적 추론과 과학적 추론의 유사성을 조심스럽게 논증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주장한다.

머피는 토대주의와 더불어 (린드백의) 내러티브신학이 가진 신앙주의도 회피하기를 원한다. 머피는 라카토스의 방법이 가진 유망한 논증과 유사한 패턴들이 신학적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가장 가깝게 만족시키는 보편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판넨베르크와 로마 카톨릭 현대주의자에서 신학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려고 한다.⁵⁴⁾ 이를 위해 머피는 라카토스적인 신학모델을 위한 “신학적 정보자료”로 간주될 수 있는 바의 특징과 분석을 발전시킨다. 신학자들은 종교적 경험을 넘어서 신학적으로 정당하고 신뢰할 만한 지식을 구분할 올바른 수단을 얻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매킨타이어가 주장하는 내재적 선으로서의 탁월한 덕의 실천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례들을 발굴하여 신학연구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

구체적으로 머피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조나단 에드워드, 로올라, 재세레파 등 각 교파들의 전통들의 작품들 중에서 영적으로 분별된 풍부한 역사로부터 기독교의 인식적인 실천에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보이는 인식을 찾기 위한 핵심적 사고로 발전시킨다. 여기에서 머피는 연구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정보자료를 찾는다. 이때 가장 시급한 요건은 ‘견고한

53) *Ibid.*, 192.

54) *Ibid.*, 19-34, 89-129.

핵으로서의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정보자료와 종교사나 종교심리학에 그치고 있는 정보자료를 구분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 이후에 전체론과 덕의 탁월한 실천의 눈으로 머피는 '기독교 분별력'⁵⁵⁾의 결과에서 신학 연구프로그램에 알맞은 정보자료를 찾는다. 즉 교회와 삶 안에서 분류된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에 관한 판단과 도덕적이고 헌신적인 실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신학을 위해 중요한 정보자료는 결국 성서 텍스트, 역사적 사실들, 사회학적, 인간학적 정보자료 그리고 아마도 자연과학으로부터의 사실들도 포함될 것이다.⁵⁶⁾ 그렇다면 기독교 외부의 사람들도 기독교 분별력에 공감할 수 있는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머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실천이 기독교 신앙의 증거를 제공하여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에 기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해왔던 것보다 더 정당화된다고 하면서도 신앙에 의해 얻는 삶속에서의 얻는 확신은 기독교 외부의 사회적 객관성도 요구한다고 본다. 이때의 그가 요구하는 객관성이 무엇인가? 머피에게 있어서 "객관성이란 유사한 상황과 경험에서 타인들이 같은 것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 분별력의 과정은 신학을 위해 적절한 자료의 제공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반복가능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와 같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반복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반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도 산출하는 것이다."⁵⁷⁾ 따라서 머피는 신학적 사실들은 이런 면에서 과학적 사실들과 그 만큼 다르지 않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결국 머피의 전체론적인

55) 기독교회의 분별을 위한 일련의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사도적 증거와의 일치 (2) 그리스도-같은 성격의 산출, 죄로부터의 자유와 성령의 열매의 나타남과 같은 의미 (3) 기도하는 마음의 토론에 기반을 둔 공동체 안의 일치. *Ibid.*, 152.

56) *Ibid.*, 130.

57) *Ibid.*, 168.

인식론은 신앙공동체의 경험과 성찰이라는 변수를 초월하는 더 광범위한 상호주관적 일관성도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머피는 큰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머피는 이론과 관찰, 언어와 실재를 아우르는 전체론, 매킨타이어의 내재적 선의 탁월성에 기인하는 덕의 실천, 그리고 라카토스의 연구프로그램의 구체적 대안을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신학이론의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머피의 시도는 결코 실용주의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1차 언어와 2차 언어의 괴리와 신앙의 규례로서의 2차 언어의 전통적 세계관에 의존적인 린드백의 신앙주의적 내러티브 신학을 넘어 전통과 합리성의 전체론적 통합의 신학을 이루었다는 것 자체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견고한 핵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에 대한 암묵적 가정을 견지하면서도 개혁교회, 재세례파, 천주교를 아우르는 기독교 전체에서 분별력의 전통을 찾아내어 이것으로 타학문 간의 대화를 주도하고 또 이 같은 기독교적 분별력의 프로그램화를 시도했으며 그래서 기독교 신학도 여타의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여타의 프로그램들과 겨루어 경쟁력 있는 연구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이것을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기독교 외부의 사회에서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은 시도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머피가 중시하는 매킨타이어 방식의 진정한 덕의 실천으로서의 전체론적인 내재적 선은 하나님의 진리이면서도 기독교 외부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윤리, 문화적 가치이며 이를 더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다. 탁월한 덕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신학 연구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그 프로그램들이 사회에서 서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경쟁하여 내재적 선인 덕을 실천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를 미래에 더 발전시키는데 경쟁적 발전

을 이룰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기독교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통적 가치들을 발굴하여 탁월한 덕으로 발전시키고 한국 기독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내재적 가치로 발전시키며 세계의 기독교 더 나아가서 인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탁월한 합리적 전통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머피에게 아쉬운 점은 기독교 분별력을 통해서 머피 자신이 강조하는 실천적 활동에 의한 합리성이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와 경건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잘못하면 린드백의 문제집인 체계내적 2차 언어적 기준에 의한 1차 언어적 사회적 합리성의 판단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기독교 분별력을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적 활동 분야에서 찾아내고 이를 강화해 나갈 방안들을 신학적 연구 프로그램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머피가 주장하는 기독교 전통과 전통 외부의 사회 모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상호주관적 합리성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논리적으로 자신의 복음주의 신학의 입장을 방어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려는 머피의 노력은 자신의 이론의 배경을 이루는 세 가지 주요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과 생명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집중하는 것을 조금은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즉 콰인의 전체론에 의하면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관찰명제를 중시하며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거미망의 전체의 어느 곳에서도 가능한 다양한 가능성을 존중하지만 머피는 개개의 관찰명제들이 모여 하나의 연구프로그램 안에서만 평가되는 아쉬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매킨타이어의 합리성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유익한 덕으로서의 내적인 선의 실천이 궁극적인 합리성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인류 사회의 대다수가 공유할 경쟁력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머피에게는 매킨타이어의 합리성에 대한 논지가 내적인 선의 가치의 실천보다는 대부분 논리적인 차원으로 평가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머피는 데리다와 같은 대륙의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이 모던의 문제점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은 “Anglo-American Postmodernism”⁵⁸⁾이라는 자신의 책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서양의 앵글로-백인-자본주의의 상식적 실재론 혹은 실용주의의 다양한 형태를 묶어서 소위 복음주의적 신앙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며 특히 현실적인 사회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머피 신학에 잔존하고 있는 전체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V. 나가는 글

기본적으로 근대 이후의 교리주의와 경험 실증주의라는 토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본 논문은 신앙의 규례로서의 공동체 전통을 통하여 사회적 합리성을 얻으려는 린드백의 시도와 전통과 전통 외부의 논의를 동시에 고려하여 합리성을 얻으려는 머피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린드백은 신앙적 규례로서의 교리전통에 충실한 가운데 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추구하므로 종교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에 보다 더 안정적인 방식을 제공하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규례인 체계내적 제2차 언어와 삶의 실천과 연관된 존재론적인 1차 언어와의 분리를 초래하고 제2언어가 제1언어를 규정하는 등 합리성에

58) N. Murphy, *Anglo-American Postmodernity: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Science, Religion, and Ethic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7).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에 반해 머피는 전체론과 매킨타이어의 내재적 선으로서의 목적론적인 덕의 실천 그리고 라카토스의 연구프로그램 이론을 적절히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기독교 공동체 신앙의 언어와 공동체 밖의 사회의 실천적 덕의 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하나의 신학이론의 방법론을 제시하여 창조적으로 자신만의 신학을 조형한 점은 그의 연구가 더 진일보 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독교 공동체의 전통과 기독교 외부사회의 괴리감이 커져가고 있는 이 때에 전통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중시하면서도 전통과 실천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함께 전체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머피의 신학은 린드벡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중요한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머피가 신학을 제 과학의 논의들을 이끌어갈 간학문적 연구 프로그램의 학문으로 시도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신학과 과학의 대화를 넘어 간학문적 신학 더 나아가서 통합학문적 신학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앙주의의 이론을 논파한다고 하면서도 머피의 전체론적 합리성이 주로 교회의 예배와 경건에 의한 사회적 영향력에 머무르고 자신의 복음주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자신이 영향을 받은 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통찰력과 생명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며 또한 대륙의 포스트모더니스트에 대한 제한된 입장과 사회윤리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본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볼 때 린드벡의 신앙의 규례라는 원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래서 신앙주의는 어떤 면에서 강력하게 옹호되고 때로는 중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래의 한국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주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머피가 주장하는 전체론적 신학 연구프로그램은 비록 몇 가지 지

적할 문제점도 없지 않지만 린드백의 내러티브 신학보다 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앞으로 한국 교회와 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작지 않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참고문헌

- 김연희. 『조지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고찰』. 『신학전망』 172, 2011, 2-34.
- 김주한. 『종교에 대한 문화-언어적 접근 방법 연구-조지 린드벡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47(5), 2003. 286-303.
- 김혜숙. 『Quine의 경험주의와 전체주의』. 한국철학회. 『철학』 32. 1989, 11월, 191-201.
- 남정우. 『세계신학의 동향-포스트자유주의 신학과 조지 린드벡』. 『기독교사상』 46(5) 2002. 146-155.
- 신중섭.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 서울: 서광사, 1992.
- 안택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론'으로 보는 기독교 신학이해: 쿤의 패러다임 변혁론에서의 '공약불가능성'과 연속성의 논지를 중심으로』. 『신학논단』 제70집, 2012. 연세대학교출판부, 103-134.
- 알래스테어 매킨타이어저, 이진우 역. 『덕의 상실』. 문예출판사, 1997.
- 최성수 편역.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학문인가: 판넨베르크와 자우터의 논쟁』. 한들출판사, 2004.
- Deason, Gary B., Post-paradigm, *Christian Century*, 95, no 40, Dec., 1978, 1184-85.
- Erikson, Stefan, Refining the distinction between modern and postmodern theologies: the case of Lindbeck, *Studia Theologia*, vol 56, 2002, 152-163.
- Grimes, Gregory G., Paradigm shifts revisited: a deeper fundamental theological engagement with the philosophy of science, *The Heythrop Journal*, LII, 2011, 181-190.
- Hanson, N. R. *Patterns of Discove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8.
- Harvey, Michael G. Science, rationality and theology, *Journal of Religion*, 87, no 2 Ap. 2007. 227-247.
-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Kuhn, Thomas S. Reflections on my critics, in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Imre Lakatos & Alan Musgrave, (ed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231-278.
- Lakatos, Imre.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ed. by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91-196.
- Lindbeck, George.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Philadelphia: Westminster, 1984.
- Murphy, Nancey. *Beyond liberalism and fundamentalism : how modern and postmodern philosophy set the theological agenda*,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 Murphy, Nancey. *Theology in the age of scientific reasoning*,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 Murphy, Nancey. Acceptability criteria for work in theology and science,” *Zygon*, vol. 22, no. 3 Sep. 1987, 279-297
- Rigby, Paul & Hengel, John Van Den & O’Grady, Paul, The nature of doctrine and scientific progress, *Theological Studies* 52, 1991, 669-688.
- Van Huyssteen, J. W. V. Systematic theolog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the need for methodological and theological clarity in theology,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no. 34, Mr. 1981, 3-16.
- Vidu, Adonis, Lindbeck’s scheme-content distinction: a critique of the dualism between orders of language, *Journal for the Study of Religious and Ideologies*, 2004, No. 9, Winter, 109-130.

논문투고일: 2014. 02. 28.

심사개시일: 2014. 03. 13.

게재확정일: 2014. 04. 05.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기독교 전통 내의 합리성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과 더불어 기독교 외부를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성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20세기의 신학의 교리주의와 과학의 실증주의라는 토대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는 신학과 과학철학의 간학문적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한다. 먼저 과학철학자 쿤의 패러다임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린드벡은 신앙의 규례로서의 교리적 전통을 중심으로 세상에서의 합리성을 추구한다. 린드벡의 논의는 교리적 전통을 논의의 규칙으로 하고 이를 통해 전통 외부사회의 합리성을 추구한 것으로 종교적으로 쉽고 안전한 방식을 제공하지만 체계내적 언어인 전통과 체계외적 세상의 존재론적 언어의 분리를 가져오고 기독교의 합리성을 전통이라는 체계내적 언어에 묶어 놓는 신앙주의라는 문제점을 낳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과 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체론의 관점을 가진 머피는 매킨타이어의 덕의 실천이라는 통찰력을 업고 과학철학자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적 신학으로 논리적 합리성을 주장한다. 머피는 신학적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독창적인 방식을 통하여 다학문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쟁력과 합리성을 갖춘 합리적 신학을 추구한다. 비록 머피가 주로 공동체의 예배와 경건 중심의 사회적 영향력에 의한 합리성에 치중하고 영미지역의 논리에 머무는 협소함과 사회 윤리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제한적인 전체론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전통의 진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영향력과 실천도 동시에 고려하는 머피의 전체론적인 연구 프로그램 신학은 린드벡의 신앙주의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간학문 그리고 앞으로 통합학문적 신학을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전통, 사회적 합리성, 린드벡, 머피, 신학연구프로그램
